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정암 삼매경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서론	안녕하세요, 해설사 강연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연사에 이어서 이곳 동부사 무소의 사찰에 대해 알아보셨고, 또 지금부터 선정암에 대해 한번 알아보실텐데요, 다들 사찰에 오실 때 기본 예절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발 디딜 때 조심하세요,
본론	<p>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산자락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을 다녀보셨을 텐데요, 이곳 무등산만 해도 광주 도심에 자리한 증심사도 있고, 이곳 화순지역에는 만연사와 고지대에 위치한 규봉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찰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수행하기 적합한 자연 속에 자리하기도 했습니다.</p> <p>사찰의 한자 풀이를 보면요, 말 그대로 절 사 터와 절 찰첩자를 썼습니다. 초기의 사찰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동 주거의 성격을 띠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제 뒤로 큰법당(대웅전)이 있고, 저쪽에는 스님이 기거하시는 방과, 공양간이 있습니다. 절의 가장 많은 존칭, 석가모니를 모신 곳을 대웅전, 큰법당이라고 합니다.</p> <p>사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공동주거적인 성격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장소로 승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이러한 절을 부르는 곳은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절이라고 부른답니다.</p> <p>첫 번째는 불보, 법보, 승가공동체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불보는-즉 부처님을 뜻하고, 법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을 뜻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승가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세 가지 삼보가 갖추어진 곳을 절이라고 합니다.</p> <p>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시대 때 불교를 공인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고구려시대 소수림왕 375년입니다. 그 당시 최초로 세워진 이불란사, 초문사라는 최초의 사찰이 있는데 현재 그 위치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지만 아마 만주지역쯤으로 추정됩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p>해설주제</p> <p>선정암 禪定庵</p>	<p>세부 시나리오</p> <p>이곳 선정암입니다. 선정암은 만연사에 딸린 작은 암자를 말하는데요 이 현재 화순에는 선정암 뿐만아니라 성주암도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 동구리 저수지 밑에 있는 성주암까지가 절터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 엄청나게 컸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p> <p>선정암의 선정이라는 뜻은 참선하여 삼매경에 이른다 라는 뜻을 말합니다. 즉, 마음이 하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이기도 하죠. 마음을 닦고 생각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에 가면 연꽃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연꽃이 상징하는 것은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것을 보고 청정을 상징하고요, 또 부처가 이 연꽃위에 앉아 있고, 잎 하나 하나가 100억개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극락왕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p> <p>참선이나, 삼매경 어렵지만 다른 생각은 접어두시고 안으로 들어가볼까요? 법당은 가운데 석가모니가 계시고, 왼쪽에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오른쪽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이 나무로 만든, 조선시대 제작으로 추정되는 좌상인데, 보살이라는 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살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p> <p>그 뒤로 배경을 보시면 탕화가 있는데 보통 8대 제자와 10대 제자를 그립니다. 간혹 탕화 귀퉁이에 사천왕을 그려 넣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따로 왼쪽에 보시는 신중탱에 따로 그려 모셨다고 합니다.</p> <p>올해 1월 1일날 점안식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약식이었으나 표준탱으로 39분의 신을 다 그린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동서남북 신, 까지 더해 총 50분이 넘는 신이 모셔진 아주 큰 규모의 탕화이기도 합니다.</p> <p>이 그림의 특징은 물감이 돌가루로 석채로 그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이 오래 300년까지도 보존될 수 있는 물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아주 오래된 장인들이 미리 사두었던 것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금강신이라고 있습니다. 번갯불을 가지고다니는 자를 의미합니다.</p> <p>그리고 이 그림 뒤로 보시면 독성탱 그림이 있고요, 신선을 그린 신선탱, 그리고 북두칠성을 신으로 형상화한 칠성탱이 있습니다.</p> <p>보통 불교신자들은 잘 아실 테지만,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죽은 날로부터 7일마다 7회에 걸쳐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 49일 동안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해서 재를 지내고요, 앞에서 만연사 명부전 보셨죠?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는 날이 49일 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p> <p>이곳 선정암에는 독성탱이라는 나반존자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면에 채색하</p>

였으며 독성은 석가모니의 열여섯 제자 중에 한명입니다. 독성은 바위에서 자란 커다란 소나무 아래 둥그렇게 생긴 초석을 깔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예를 보시면 경책이 쌓여있고, 목죽과 새가 그려진 병풍이 세워져 있지요? 또 보시면 멀리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아 산 속임을 짐작케 합니다.

이곳 선정암의 독성탱은 1916년에 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네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이 불화를 그린 남곡세섭과 초암세섭은 그 시기 활동한 그림을 그리는 승려였습니다. 이곳 화순뿐만 아니라 경기도 여주, 여수 등에 각각 그림을 그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2Page/3page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목조 관음보살좌상 木造 觀音菩薩坐像</p>	<p>잠시 이동하여 이곳 목조 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나무로 조각 된 불상입니다. 제작된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복장이 원형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추측하건대 제작 수법으로 보아 17세기 후반, 삼인이라는 사람의 작품과 유사성을 띠어 17세기로 추정되는 것입니다.</p> <p>이 관음보살좌상은 중생을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관음보살을 표현한 상 <small>像</small>입 <small>상</small>입니다. 머리에는 꽃과 화염문(불꽃무늬)이 장식된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얼굴에 표현된 모습(가는 눈과 얇은 눈썹 등)이 조선시대 조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붙이고 다리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뜻을 가졌지요.</p>
맺음말	<p>기존에 사찰이라는 곳에 다니다보면 각 건물의 이름도 불화의 그림도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짧지만 세심하게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보시고 조금 더 명확히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화라는 것도 이처럼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다시 왔던 길로 조심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p>
3Page/3page	